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이영아*

〈차례〉

1. 서론
2. ‘데모’하지 않는 대학생-1970년대 박완서 소설
3. 침묵, ‘빨갱이’로 낙인 된 가족의 운명-〈카메라와 위커〉, 〈돌아온 땅〉
4. ‘학생운동’에 대한 시각의 전환-1980년대 박완서 소설
5. ‘대문자’의 역사 뒤의 ‘어머니’의 눈물-〈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6. 결론

〈국문초록〉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는 당대의 다른 작가들이 천착했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은 연애, 결혼, 돈벌이, 취직 등이 최대 관심사이고, 사회의 부조리나 시대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완서는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면은 실제 1970~80년대에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자녀들에게 누누이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던 작가의 삶에서의 태도와도 일관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의 근원은 박완서의 개인사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박완서는 오빠의 좌익 이력 때문에 사상검증에 대해 원초적 공포를 갖고 있었다. 이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학생 운동을 ‘지식인’의 시선에서 보는 것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선에서 본 박완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질이다. 그녀에게는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보다 후세대(의 생명)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박완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소설에서 학생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룬다. 실제 1988년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어야 했던 박완서에게 198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죽음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그들의 부모와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모든 비굴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주고자 했던 생명을 놓쳐버린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핵심어: 박완서, 1970년대, 1980년대, 학생운동, 대학생, 빨갱이 콤플렉스, 어머니

1. 서론

박완서는 1970년 불혹의 나이에 늦깎이로 문단에 데뷔했지만 평생 현역작가로 남고 싶었던 본인의 바람대로 2011년 별세하기 직전까지 꾸준한 집필활동을 펼쳤다. 40여 년 동안 거의 쉼 없는 작품 활동을 해온 그녀의 소설들은 세계사판 중·장편 전집 22권, 문학동네판 단편 전집 6권의 분량이다. 기존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을 모은 소설집(『기나긴 하루』, 문학동네, 2012)과 산문집(『세상에 예쁜 것』, 마음산책, 2012)도 작고 이후 발간되었으며, 장편 15편과 단편 80여 편 외에도 동화, 산문집, 콩트 등까지 합하면 박완서는 실로 막대한 양의 작품을 남긴 다작의 작가이다.

그런 만큼 그녀의 작품들에는 시대사적, 개인사적 상황에 따라 작품의 경향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물론 그녀의 작품들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문제의식들도 많다. 유년시절의 기억, 한국전쟁과 분단문제, 중산층 여성의 일상과 같은 소재들은 그녀의 작품목록 속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시기별로 박완서 작가에게 닥친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소재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기존의 박완서 연구는 대부분 이 전자의 부류, 즉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년기 체험에 대한 자전적 성장소설¹⁾, 한국전쟁 및 남북분단의 상처²⁾, 모성(모녀관계)의 문제³⁾ 혹은 여성성과 페미니즘⁴⁾, 노년의 삶⁵⁾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에서 거론되는 작품

- 1) 노미연, 『1990년대 여성소설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미용, 『박완서 소설 연구: 체험과 목적을 통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임해림, 『여성 작가의 자전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정유경, 『박완서 성장소설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박은주, 『박완서 자전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유지은, 『박완서 성장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권정희, 『박완서 소설 연구: 성장기 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강민정, 『박완서 소설 연구: 자전적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한송이, 『박완서 단편소설의 자전적 인물 변화양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박상미, 『박완서 소설 연구: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권향숙, 『박완서 소설의 성장소설적 양상』,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 2) 장희원, 『박완서와 김원일의 분단소설 비교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1; 정해진, 『박완서 소설 연구-전쟁체험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이수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6.25 전쟁의 수용 양상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문애,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가족의 피해의식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5; 송봉은, 『한국 전후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안남일, 『현대소설에 나타난 분단콤플렉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4호, 2007.
- 3) 신은정, 『박완서 소설 속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윤송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 신경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박채랑,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성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박희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1; 서미혜, 『〈엄마의 말뚝〉연작에 나타나는 억척 모성상과 근대적 여성의식과의 관련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 4)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9; 이윤경, 『박경리 박완서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조윤희, 『박완서의 페미니즘 소설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2; 박진화,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10; 광세나,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변모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주아로미, 『박완서 단편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도 그녀의 수많은 작품들에 비해 제한적인데 주로 <나목>, <엄마의 말뚝> 연작, <도시의 흥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미망>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이처럼 기존의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논점과 연구 대상에 있어서 몇몇 테마 일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이 박완서 소설 연구의 핵심에 속하는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박완서가 남긴 100여 작품을 두고 할 수 있는 연구의 스펙트럼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한국전쟁(6.25)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외한 시대의식에 대해서는 박완서 소설에서 간취해보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작가 자신 “나는 역사의 장강을 꿰뚫어보거나 관조할 만한 역량이 모자라고 다만 그 장강의 한 줄기가 내 개인사를 어떻게 할퀴고 지나갔나를 진술하는 데 급급했다.”⁶⁾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또한 실제 박완서가 ‘역사의 장강’으로부터 비껴서 있었다면 그것이 그녀의 소설(혹은 작가적 역량)의 한계 때문일까?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박완서 소설에 대해 1970~80년대 한국의 시대적, 소설사적 맥락 하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70~80년대 한국 소설이 천착했던 대학생의 학생 운동·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박완서는 어떠한 독특한 입지점을 가지고 소설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박완서 소설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을 해보려 한다.⁷⁾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홍지화,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박완서 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인숙,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여성의 ‘성’』, 『국어어문』 22호, 2000.

- 5) 최진숙,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9; 황은진, 『노년서사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혜경,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9호, 2010; 정미숙 외,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54호, 2010;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5호, 2008.
- 6) <내가 걸어온 길>(1991),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64~65쪽.
- 7) 이 글과 가장 가까운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이선미의 『세

2. '데모'하지 않는 대학생-1970년대 박완서 소설

이재선은 그의 한국 현대소설사 기술 과정에서 1970~80년대 대부분의 한국소설이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주요테마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소설에서 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근대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특징이지만 특히 1970~80년대 소설에서는 “대학생-데모란 이 시대의 <클리셰>”⁸⁾가 반복적으로, 대다수의 작가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재현되어 왔다. 그런데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에서는 이 시기 소설에서 그 ‘클리셰’의 ‘데모하는 대학생’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주 암시적으로, 그리고 주변부적인 인물로만 등장하며, 그들의 사유 체계나 활동 내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전무하다.

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상허학보』 12호, 2004)을 꼽을 수 있다. 이선미의 연구는 1990년대의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대상과는 다르지만, ‘탈냉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 박완서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1987년의 민주화를 기점으로 박완서의 소설이 달라진 양상을 예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선미의 작업보다 앞선 시대, 즉 1970~80년대를 중점으로 다루어 박완서 소설의 ‘탈냉전’ 이전의 시대의식부터의 변모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8) 이재선, 『대학생의 행동·고뇌·방황-7·80년대 소설과 20대의 행동 자장(磁場)』,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407쪽. 이재선은 이 글에서 7·80년대 소설에서의 대학생상의 제시가 매우 뚜렷하고 특징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보았으며, 이 특징을 크게 7가지로 제시했다. ①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대학생은 학생운동과 관련·연계되어 있고, ②대학생들은 현실을 정치·경제 등이 독점화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기고 경찰·정치·군부에 대해 억압구조장치로 보아 반대와 대응의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③작가들 역시 대학생들의 반항적 가치를 대부분 긍정하고 ④학생운동은 이상적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지향하는 양상도 있지만 기존 체제의 전면 부정이라는 과격주의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유형에서는 독선적 나르시시즘, 반란적 소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또한 ⑤등장인물들 사이에는 세대간 갈등이 고양되어 있어서 상호불신과 증오, 적의의 긴장관계를 보이고, ⑥대학생과 학생운동에 대한 조형력에 있어서 작가 개인의 특유한 시각이 부족한 채 상투화되어 있으며, ⑦결국 젊은 대학생 주인공이라는 것은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세대론적으로 ‘20대의 소설’에 머무는 한계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401~449면 참조.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편으로는 <재수굿>(1974), <연인들>(1974), <저렇게 많이>(1975), <포말의 집>(197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대학생의 관심사는 국가의 억압 구조나 권력의 부정부패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벌이, 연애, 결혼 등이다. <재수굿>에서는 과외로 돈을 벌고, <연인들>에서는 데이트에 폭 빠져있고, <저렇게 많이!>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팔자를 고칠 작정을 하며, <포말의 집>에서는 돈 많은 과부와 일종의 ‘원조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이들 대학생에게 먹고 살고 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듯 그려진다.

<재수굿>에서 ‘나’는 서울대 학생으로, 구멍가게를 하는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잣집의 국민학생 아들 과외를 시작했다. ‘나의 부모가 평소 부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강했던 터라 ‘나’ 또한 “부자들의 생태에 대해서 만만찮은 날(刃)”을 지녔었지만, “소년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내 날은 자연스럽게 그 집의 유족한 생활양식 속에 함몰”되어 간다.(<재수굿>,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334면) 그러나 차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 냉혹해지는 모습(해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富)를 지키기 위해 미신을 동원할 만큼 속물적인 모습을 보며 부자들에게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런 ‘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들을 향해 (비)웃어주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영 못 받게 될지도 모르는 월급 이 만원이 아까워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와 <포말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돈, 연애에 대한 대학생의 속물적 집착이 드러난다.

한때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 가정적인 입장 때문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열렬히 소망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아마 대학 삼학년 때던가 사학년 때던가 그쯤일 게다 (...) 그때 벌써 한은 재벌의 사위 되기가 열렬한 소망이었다.(<저렇게 많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문학동네, 2006,

37~38쪽.)

청년은 내 직선으로 된 집을 칭찬해줬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 그가 가난하다는 얘기, 학비 벌기에 짓눌린 나머지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서든 많은 과부를 만나 과부에게 실컷 재미나 보여주고 학비나 얻어 썼으면 하는 거란 얘기까지 했다. 청년은 내가 돈 많은 과부이기를 바라고 있었다.(〈포말의 집〉,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80쪽.)

이처럼 박완서 소설에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은 돈 많은 이성을 만나는 일로 여겨지곤 한다. 개인의 빈곤을 사회적, 구조적 개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들을 통한 구원은 실패한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富)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철옹성은 너무도 공고한 것이어서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사회 속으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수굿>의 '나'는 부잣집 과외에서 잘리고, <저렇게 많이!>의 '나'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골이 빈 부잣집 딸년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과외선생 일로 돈을 벌고, <포말의 집>의 청년 역시 돈 많은 과부를 유혹하는 데 실패한다.⁹⁾

<연인들>은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 대학생들의 의식적 각성,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그나마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만한 소설이다. <연인들>의 주인공 '나'는 “꽤 이름도 있고, 인기도 있는 대학의” 배지를 단 대학생이다. 그런데 그의 관심사는 오직 사랑, 여자뿐이다. “아름답지만 골 빈 여자와 더불어, 나도 골이 상쾌하도록 텅텅 비어가면서, 골을 제외한 딱 부분은 마치 단물 오른 과물(果物)처럼 충만해지는 느낌, 그 즐거움을 무엇에 비할까. 정말이지 난 이 여자와 사랑을 하려나보

9) 하응백은 “박완서 소설이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으며, 소시민의 속물근성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있음을 지적했다.;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박완서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432쪽.

다”(〈연인들〉,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192면)라는 생각이나 하던 대학생 ‘나’는 ‘내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아무런 해명 없이 경찰들에 의해 육교 통행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육교를 건너지 못해 발이 묶인 사람들-인용자 주)을 위해 뭘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196면)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막은 순경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목살당했다. 제법 당당하게 반항적인 몸짓으로 그들을 뚫고 가보려고도 했지만 순경에게 뒷덜미를 잡힌 채 떠밀려질 뿐이었다. 순경은 “뭐야 년. 무슨 뺨으로 함부로 법과 질서를 무시해 응? (...) 대학생이면 다야? (...) 건방지게斯里.”(200면)라며 ‘나’를 내동댕이쳤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재미난 구경거리 만난 듯 웃어댔다.

그날 밤 ‘나’는 수치심에 폭음을 하다가 통금위반, 음주폭행으로 7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고, 5일째에 애인의 면회를 받게 된다. 생전 처음 해보는 면회여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온 그녀는 면회실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불합리하다고 따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뭐이년아, 네가 뭘데 나한테 설교야. 네가 서장이야 뭐야? (...) 같잖은 년 같으니라구. 아니꼽게 뭐, 법을 다 쳐들어. 지금 내 기분이 울고불고 빌붙어도 될까 말한테”(211면)하는 독설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담당자에게 공포를 느끼며 사과를 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나’는 세상에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왜 사람들이 어른이 됨과 동시에 하나같이 행주처럼 무기력해지고, 차별레처럼 비열해지고, 잘 삶은 야채처럼 보들보들, 나글나글해지는지를 몰랐었다. 왜 어떤 악덕에도 순종만 했지 정직하게 싸움을 걸 줄을 모르는가가 궁금했었다. (...) 그런데 난 지금 그걸 알아낼 꼬투리를 잡은 듯했다. 마치 어떤 흉악한 음모의 단서라도 잡은 듯이. 그래 거긴 분명히 음모의 냄새가 있어. 우리를 고분고분 길들이고, 우리의 가시를 마멸시키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꾸며진 음모의 냄새가. 나나 내 여자가 겪은 곤욕도 결코 우

연한 횡액이 아니라 미리 마련된 음모에 의한 초보적인 기초훈련쯤에 해당 될 테지.(〈연인들〉,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213면)

그러나 〈연인들〉의 ‘나’는 이 ‘음모’를 깨닫게 되자, “겨우 신음처럼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을 뿐”(213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속한 사회가 이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들에 의하여 참여 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무서웠기 때문이다.”(214면)라는 언급이 보여주듯 ‘나’에겐 그러한 현실이 단지 ‘두려움’일뿐 ‘극복’이나 ‘저항’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장면이 박완서가 그리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성의 계기도 매우 단편적, 일상적(육교 통행금지, 야간 통금시간 위반 및 음주로 구류, 면회실의 횡포)인 차원의 사건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실적 모순을 자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포’와 ‘한숨’에 그칠 뿐 ‘직접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 박완서의 ‘학생 운동’에 대한 형상화 방식의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정확히 ‘운동권 대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과 연관된 경험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로는 부잣집 아들이 경험 삼아 노동현장에 잠시 뛰어들었다가 우연히 여공과 살림을 차렸으나 가난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나자 부유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도둑맞은 가난>(1975)과, 교수인 남편이 대학생 제자들을 도와준 것이 문제가 되어 강제 소환되는 데에서 소설이 시작되는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를 꼽을 수 있다.

“그분(남편-인용자 주)은 평생 외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저 분제가 제가 아는 그분의 단 하나의 외도입니다. 학교 외의 고장에 그분이 협조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겐 많은 제자들이 따랐나봅니다. 그중에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썽스러운 청년도 있었죠.”(〈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337~338쪽.)

“제자들이 따르는” 교수, 그 제자들 중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썽스러운 청년”이라는 구절이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과 이들을 후원한 교수를 암시하는 표현의 전부이다. 남편은 이 일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동행”길을 나서게 된다. 물론 기관에서 나온 자의 표현이기는 하나 학생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썽스러운 청년’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에서 기성세대의 시선에 비친 학생운동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후술 될 <꿈과 같이>의 ‘과오’라는 표현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런가 하면 <도둑맞은 가난>에서의 노동 현장 체험을 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계급적 특권 의식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속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위선과 가식을 부각시키고자 한 듯 보이기까지 한다. ‘상훈’이 가난한 공돌이인 줄 알고 생활비를 아끼려 동거를 했던 공순이 ‘나’는 어느날 번듯한 대학생 차림으로 거액의 돈을 들고 나타난 ‘상훈’의 모습에 놀란다. ‘상훈’은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도둑맞은 가난>,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403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그리고 ‘나’와의 동거생활과 공장 노동 체험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라는 말로 그동안의 생활을 표현한다. 이에 자신의 가난을 ‘소명’이라 여기며 한 번도 부끄러워해본 적 없던 ‘나’는, 상류층 사람들이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흠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한다”(406면)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상훈’과 같은 부자들의 허영에 가난과 노동이 이용당하는 것을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였듯, 박완서는 가난하지 않은 대학생들, 즉 제3자의 ‘민중 속으로’가

일종의 허영, 위선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학생 운동이 어느 만큼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박완서는 회의적이었던 것이다.¹⁰⁾

그 외에 박완서 소설에서 '운동권 대학생'이 등장하는 경우에는--'운동권'이었다는 사실조차 매우 암시적으로만 나타나는데--행방불명된 인물로 그려지거나(<겨울 나들이>, 1975) 한때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 때문에 다른 동기들에 비해 취직도 늦어 사람구실도 못하고 사는 인물로 형상화된다(<꿈과 같이>, 1978; <꽃 피고 잎 지고>, 1981).

<겨울나들이>에서 주인공이 혼자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한 여인숙을 찾아 들어간다. 여관 주인인 중년의 여성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안온한 분위기에 이끌려 주인공은 그들의 집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가 식당 주인 여자의 외아들이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며칠째 소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즈이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에 업혀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 어제 글썽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 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군요. 평소 품행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 일로 고자질 같은 건 없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던지라 만의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올라와 수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사연이었어요..”(〈겨울 나들이〉, 박완서 단편소설

10)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박완서의 불신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바다. 박완서만큼 끊임없이 집단 환상이나 추상적인 관념에의 헌신을 경계해 온 작가도 드물다. 개인적 진실의 추구보다 집단적 응집력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제시에 치중했던 7,80년대 우리 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염두에 둘 때 이 점은 박완서 소설의 단연 돋보이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학동네, 2006, 456쪽.

전집2, 문학동네, 2006, 25~26쪽.)

<꿈과 같이>의 주인공은 대학 때 “젊은 혈기로 저지른 일시적인 과오”로 교사인 아내에 빌붙어 살다가 대학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뒤늦게 유명 기업 홍보부에 취직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원들과 달리 정식 절차를 밟은 채용이 아니어서 자신의 직장 내 입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그는 다시 사표를 써야할 지경에 이른다.

나는 나에게 빛나는 버클을 선사한 대학에 재학할 때, 젊은 혈기로 저지른 일시적인 과오 때문에 만족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그 과오가 깨끗이 말소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때 저항하고 어지럽힌 사회질서에 지금은 빌붙고 매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증거는 충분했다. 그러나 나를 따라다니는 구비서류는 오직 나의 과오만을 증명했다.(<꿈과 같이>,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361쪽.)

<꽃 피고 잎 지고>에서는 주인공의 남편의 친구인 석철이 한때 학생운동을 한 전력 때문에 아내가 가구점을 운영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석철은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맡아왔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신문사에 어렵게 취직하게 되는 스토리가 소설에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박완서는 한때의 학생 운동 경력이 젊은이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었다.

3. 침묵, ‘빨갱이’로 낙인 된 가족의 운명-〈카메라와 워커〉, 〈돌아온 땅〉

왜 박완서는 1970년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문제를 소설화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그녀의 문단데뷔 시기와 그녀의 대학 생활 경험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그녀는 40세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했다. 이미 다섯 아이의 어머니가 된 주부의 몸으로 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재현하고 싶은 주된 대상은 대학생이나 학생운동이 아닌 30~40대 가정주부의 일상과 감정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자신의 가족사적 상처의 기록에 더 몰두했다.¹¹⁾

그리고 여러 차례 작가 본인이 언급하였듯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로 쓸 수가 없다”¹²⁾는 작가의 성향 상 입학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대학 생활에 대한 소설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5남매를 둔 박완서는 당시 딸들의 대학 생활을 지켜 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요즘 대학생’들의 일상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¹³⁾ 즉 몰라서 못 썼다기보다는 일부러 안 썼을 가능성이 더 크다. 즉 박완서는 의식적으로 ‘데모하는 대학생’에 대해선 다루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다루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가 이처럼 대학생의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 근본적 이유를 단순히 시대에 대한 의식의 결여나 기

11)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삼킨 죽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 나의 곡의 방법이란 우선 숨졌던 것을 털어놓는 일이었다. (...) 나는 어느 틈에 내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토약질하듯이 괴롭게 몸부림을 치며, 토약질하듯이 시원해하며.”; <부처님 근처>,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110~113쪽.

12) 최재봉 작가 인터뷰,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8쪽.

13) “딸들이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문화까지는 몰라도 대학가의 풍속에 대해선 뭇 좀 아는 척 못할 것도 없었다. 그들의 미팅 풍속으로부터 군것질 버릇, 지적 허영심에 이르기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딸들이란 그만큼 엄마에게 말이 많았고, 때로는 그들의 세계로 엄마를 초대하기도 했다.”; <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120쪽.

성세대의 보수성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¹⁴⁾ 그녀 역시 당대 젊은이들의 울분이나 답답함을 이해하고 있었고¹⁵⁾, 자신의 ‘데모’에 대한 회피를 부끄러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¹⁶⁾ 그녀의 태도의 근원은 <돌아온 땅>(1977)과 <카메라와 워커>(1975) 같은 작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돌아온 땅>에서 삼촌의 월북, <카메라와 워커>에서 아버지의 ‘빨갱이’ 전력은 자녀들의 삶에 큰 굴레이다.

아들은 공과대학을 졸업하던 해 국가기관인 모 연구원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모두 다 부러워했다. (...) 그러나 아들은 신원조회에 걸려 이차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다. 월북한 삼촌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 (...) 삼촌이 느닷없이 소생해서 아들의 장래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 만일

-
- 14) 이러한 맥락에서 이선영이 지적한 바, 박완서가 “특히 사회와 역사의 모순에 대한 그녀의 비판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들에서는 예외없이 그 배경이 1970년대 전후부터 80년대 초엽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무렵 우리 사회는 파행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기형적인 도시화 등으로 갖가지 사회적 부조리와 불균형, 비리와 타락이 계속 심화되는 중이었다. (...) 박완서의 많은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대해서 그녀 자신이 문학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투시와 날카로운 비판이 수반되어 있다. 박완서의 작품이 모두 총체적 상황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더욱 검토를 요할 문제이지만 현실에 대한 이 작가의 투철하고 예리한 비판의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박완서론』, 삼인행, 1991, 67쪽.
- 15) “그들은 답답하다 못해 땀땀하다. 그들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나절도 못 가서 끝장이 나고 마는 협소한 우리 국토일까? 기성세대의 주책일까? 사회적, 정치적인 부조리일까? 10년이 여일한 교수의 낡은 노트일까? 미래에의 불안일까? 이 몇 가지 어렵짐작이 다 맞을 수도 그 중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으리라.”; <답답하다는 아이들>(1973),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200면
- 16) “나는 또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데모 하지 말라고 이른다. 혹시 데모에 휩쓸리게 되더라도 행여 앞장서지는 말고 중간쯤에서 어물쩍거리다가 뒷구멍으로 살금살금 빠지라고 이른다. 그 애들의 경멸의 시선이 다소 따갑지가 웅얼웅얼 그런 소리를 한다. 나는 올 1년 내내 이렇게 가족들에게 비겁과 보신(保身)을 가르쳤다. 잠 안 오는 밤 문득 이런 내가 싫어진다. 구역질나게 싫어진다.”; <추한 나이테가 싫다>(1974),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172쪽.

아이들의 운명에 그런 악랄한 간섭을 하고 나선 게 삼촌의 산 망령이 아니라 산 몸뚱이었다면 나는 칼부림도 서슴지 않았을 게다. 그러나 나는 삼촌이 진짜 빨갱이는 아니었노라고 웅얼웅얼 아이들에게 먹혀들지도 않을 변명이나 하는 게 고작이었다.(<돌아온 땅>,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159~160쪽.)

<돌아온 땅>의 '나'의 아들과 딸은 삼촌이 월북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상 문제를 의심받아 취업에 실패하고(아들), 해외유학도 허가받지 못한다(딸). 이 때문에 딸은 약혼자와 결혼을 하여 함께 유학길에 오르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는 주인공 모녀가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시외버스에 한 취객이 올라타 행패를 부리는 에피소드가 들어있다. 사람들이 그의 주사(酒邪)를 헌병을 통해 막으려하나 실패한다. 헌병이 돌아간 뒤 취객은 적반하장으로 “야, 이 빨갱이 놈의 새끼야.”라고 고함친다. 그리고 살기등등한 눈으로 승객들을 노려보며, 헌병에게 자신을 끌어내라고 한 놈은 빨갱이 아니면 공산당일 거라고 말한다. 승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취한의 ‘너도 빨갱이지?’하는 지적이 자기에게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갑자기 승객이 죄인이 되고 취한은 죄인을 응징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박완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취한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떨며 미워하는 빨갱이라는, 악 중에도 최악을 내세워, 자기가 저지른 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마침내 무화(無化)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이란 악은 빨갱이라는 강렬한 최악만 만나면--그게 설사 허상이더라도--맥을 못 추고 위축되는 이 땅 특이한 풍토를 이 취한은 취중에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돌아온 땅>, 박완서 단편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172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떨며 미워하는 빨갱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박완서가 살았던, 소설화했던 1970년대란 ‘빨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악이 ‘차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매카시즘의 시대였던 것이다. 당시 그러한 대표적 사건으로는 1975년 4월 9일 긴급조치 7호와 함께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을 사형선고하고, 재판 종료된 지 18시간 만에 집행한 ‘인혁당 사건’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기를 드는 모든 사람들,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 무기징역 등의 혹독한 처벌로 제거했다. 이 사건에 이어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계기로 전 국민을 반공 쫓기대회와 안보대회에 참가시키고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여 사소한 정치활동은 물론 모든 언론과 입속말까지 가로막았다.¹⁷⁾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거(가족)의 빨갱이 이력’이 드러나는 일은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력은 이 소설 속에만 있는 소재가 아니라 박완서 개인사에 실재했던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완서는 여러 수필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학생 운동에 참여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절대 눈에 띄지 말 것을 당부했음을 털어놓았다.

70년대엔 등록금 말고도 데모 때문에도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다. 거의 해마다 데모 열풍으로 대학이 문을 닫지 않으면 조기 방학을 하던 때였다. 부모도 데모가 날 시기를 짐작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자식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내보내던 생각이 난다. 데모하지 말라고, 정 안할 수 없을 때라도 앞장서지 말고 중간쯤에 서라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적당한 시기에 재빨리 도망치라고……이런 비열한 당부를 간절하게 하는 에미를 자식이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았던가도 기억하고 있다.(〈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꽃씨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117~118쪽.)

주지하듯이 박완서는 가족(오빠)의 좌익 이력 때문에 사상검증에 대해

17) 이정식, 『새로운 학생운동사』, 도서출판 힘, 1993, 264쪽.

원초적 공포를 갖고 있었다.¹⁸⁾ 눈앞에서 죽어가던 오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박완서에게 사상검증은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다.¹⁹⁾ 특히 그 검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자기(세대)가 아니라 자녀세대라는 것(연좌제)은 더욱더 큰 공포였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학생운동에 가담할 경우 다른 대학생들보다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내면이 더 직접적으로 부각된 소설이 <카메라와 워커>이다. 이 작품에서 고모인 ‘나’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던 오빠가 6.25 중에 누군가에게 끌려 가 처형당하고, 울케까지 전쟁통에 폭사당한 뒤²⁰⁾ 오빠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다. ‘나’와 ‘나’의 어머니는 이 조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착실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일요일이면 처자식 데리고 카메라 메고 놀러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조카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차단하려 애를 쓴다. 문과 출신은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18) 이러한 공포는 다음과 같은 소설에서 연행-조사 과정을 통해 직접 서술되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식구는 차례차례로 모 정보기관에 연행돼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내 육감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곳에는 나의 과거와 현재 또 삼십팔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맺은 온갖 인연(人緣), 지연(地緣)의 말초적인 부분까지가 유리상자의 표본처럼 질서 있게 정리돼 있었다. (...) 6.25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78~79쪽.

19)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호, 2011, 86쪽.

20) “나는 이런 오빠를 막연히 빨갱이라고 생각했었다. 오빠 방의 책이 맨 그런 책이었고,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를 엿들어봐도 누가 들으면 큰일날 불운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 첫 아기를 본 게 또 아들이어서 제법 푸짐하게 백날 잔치까지 하고 나서 며칠 만에 6.25가 터졌다. 나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오빠가 활개칠 세상이 왔나보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내 추측이 들어맞는 것 같았다. 불안할 만큼 생기가 나서 뻔질나게 외출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침몰해지더니 바깥출입을 끊고 들어앉았다가 친한 친구한테 반 강제로 끌려나간 후 죽어서 돌아왔다. 그후 울케까지 친정으로 쌀을 얻으러 가다 폭사를 해, 내 조카는 그만 고아가 되고 만 것이었다.”; <카메라와 워커>, 박완서 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360~361쪽.

은 왜 사나, 뭐 이런”(362면) 것을 생각하기 십상이라며 문과에 진학하려는 아이를 억지로 이과로 전과시켰다. ‘나’는 조카에게 “어떡허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363면)다고 주지시킨다. 또한 한창 학생운동이 심각했던 때 대학에 입학한 조카가 행어나 데모를 할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일렀다.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366면)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나’의 과보호는 조카의 인생을 오히려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고 말았다. 모 건설회사의 영동고속도로 현장의 측량기사보 자리로 가게 된 조카는 임시직인데다가 월 틈도 주지 않는 혹독한 노동이어서 몸은 피폐해지고, 촌구석에서 홀로 하숙생활을 하느라 더위와 악취에 찌들어있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조카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에게 조카는 고모와 할머니가 원하는 삶의 파국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은 고모와 할머니,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결국 ‘나’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을 느낀다.

요컨대 박완서는 1970년대 소설에서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사회의 부조리, 모순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개인사적 특수성 때문에 자녀세대가 ‘빨갱이’가 되는 일에 대한 원초적 공포가 있어서였던 것이다. 이는 학생 운동을 그 내부자인 ‘학생’이나 ‘지식인’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어머니’의 시선에서 본 박완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²¹⁾ 그녀에게는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보다 자녀세대

21) 앞서 연구사 검토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박완서 소설에서 ‘모성성’의 문제는 많은 연구가 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박완서 연구에서 ‘모성성’은 두 측면을 중심으로

(의 생명)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어미의 배를 빌어 태어난 이 땅의 아들딸들아, 제발 죽지만
말아 다오. 남을 죽일 위험이 있는 짓도 말아 다오. 설령 네 목숨과 지상의
낙원을 바꿀 수 있다 해도 네 어미는 결코 그 낙원에 못 들지니.(〈어미의 5
월〉(1989),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햇빛출판사, 1996, 57면)

4. ‘학생운동’에 대한 시각의 전환-1980년대 박완서 소설

한편 박완서 자신 또한 ‘빨갱이’ 작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렸던 것이 학생 운동 문제나 시대 비판적 주제의식에 대해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비검함’에 대해 박완서가 아무런 자의식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데모를 말리는 자신을 ‘비열하다’ 여기고, 소설에서도 ‘사회에 순응하는 삶’의 끝이 비참함을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가졌던 양가적 감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박완서의 감정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침묵과 실어>(1980)를 들 수 있다. 1980년 겨울에 발표된 이 소설은 1980년 5월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박완서의 ‘어머니’의 모성성으로 ‘억척 모성’ 혹은 ‘모계가장’의 의미와 재현양상을 고찰하는 것이고(이선미, 『어미의 역사와 ‘늙은 엄마’의 진실』, 『현대문학의 연구』, 1997; 신영지, 『박완서 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다른 하나는 박완서라는 ‘딸’이 가부장제적 질서나 혹은 현모양처의 모성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경우였다(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선옥, 『모성 다시쓰기의 의미-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2000). 그에 비해 5남매를 낳아 기르고 외아들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박완서 자신의 모성성에 대한 고찰은 등한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박완서 자신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 대한 모성성을 발현하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박완서 소설의 모성성 논의와 구별된다.

22) 이를 두고 류보선은 “타락한 현실이 만들어 준 실존의 그늘에 안주할 수도, 그렇다고 필사적으로 자기를 방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든 것으로 진단한다.;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 박완서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456쪽.

의 광주항쟁 후 전두환 정권의 군부정치 하에서 새로운 독재의 폭압을 견뎌야 했던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소설은 작가이자 잡지사의 편집장인 주인공이 경영주와 잡지의 기획 방향을 두고 회의 준비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 회의에서 논쟁을 하는 지점은 이 ‘어려운 시대’의 활자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경영주와 실무자 간의 이런 암투를 끈이곧대로 거슬로 올라가면 혼한 말로 시국관의 차이 같은 데 부딪치게 마련이었다. 우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텐 서로 이견이 없었다. 결국 이견은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의 활자의 구실에 있었다. 실무진은 활자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천착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경영주는 어려움에 대한 천착은 커녕 관심마저 딴 데로 돌림으로써 어려움을 잊게 하는 데 활자는 이바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침묵과 실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학동네, 2006, 123쪽.)

그러나 사표까지 준비해 들고 들어간 편집회의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 역시 강경하게 맞선다는 건 지혜롭지 못해요.”(126쪽)라며 경영주의 입맛에 꼭 맞는 소리만 지껄여대고 만다. 그런 자신의 ‘가고자 버르고 닦은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단 한 번의 우여곡절조차 없이 마냥 매끄럽고 순탄한’ 자신의 혀에 구역질을 느낀다. 편집회의를 마친 후 그가 자신의 비겁함에 자괴감을 느끼며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도달한 곳은 ‘윤상하’라는 문단 원로의 집이었다. 주인공은 십여 년 전 ‘윤상하 문학상’이 제정되어 그 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일제 말기의 그 가혹한 시기를 그분이 최소한도 침묵만 지켜주었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붙은 상의 수상을 일단 고려는 해보았을 것”이라며 수상을 거부했던 적이 있다. 1980년이라는 시기를 살며 침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을 투사하기 위해 그는 윤상하를 찾아갔던 것이다.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선생님의 변명을 들으러 왔단 말입니다. 왜 침묵을 못 지켰나 뭐라고 좀 변명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기고만장했든지 순수했든지 선생님의 변명을 들어드릴 아량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아네요. 그걸 듣고 싶은 아량이 생겼단 말입니다. 아량이 아니라 필요성일지도 모르죠. (...) 제 아량을 위해, 아니 제 비열을 위해 제발 뭐라고 한 마디 해보세요.”(〈침묵과 실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학동네, 2006, 141쪽)

그러나 윤상하는 이미 몇 해 전 중풍에 실어증까지 걸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주인공은 간병인에 쫓겨 그 집을 나오면서 “오늘까지 열심히 허덕인 그의 삶 자체가 온통 터무니없는 헛수고였다는 허망감”(144쪽)에 빠진다. 즉 박완서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작가로서 저항이나 침묵은 커녕 권력에 아첨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줄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묵하는 것이든, 실어증에 걸린 것이든 누구도 용기 내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 박완서가 진단한 ‘1980년’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가 되면서 사회, 정치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작가로서의 죄책감을 의식하기 시작한 박완서는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학생운동 문제를 소설화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박완서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설에서는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의 문제가 작품 전면 배치되기도 하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의 일기>²³⁾(1985), <꽃을 찾아서>²⁴⁾(1986)와 같은 작품에

23) <사람의 일기>에서 ‘나’는 친구 딸 정미가 함께 운동을 하고 징역을 살았던 남자와 결혼을 하려한다는 이야기에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혁명에의 열정을 옹호해준다. 둘 다 옥살이를 했던 경력이 있고 서로 번갈아가며 옥살이를 하던 시절 주고 받았던 애뜻한 두 사람의 편지의 ‘진실성’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24) <꽃을 찾아서>에서 주인공 장명환은 운동권 자식을 둔 서교수 앞에서 데모 한 번 안 하고 얌전히 공부만 했던 자신의 자식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

서는 주인공 친구들의 자녀들이 학생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꽃을 찾아서>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학생운동을 하지 않은 자식을 둔 아버지의 ‘열등감’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한다.

내가 열등감 느끼는 것은 자식들을 비교할 때라네. 자네가 뭐라든 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자식이 더 잘됐는데도 말야. 자네 아들은 둘 다 참 자네 속 많이 썩었지. 운동권인가 뭐가에 미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나 하고 붙들려가고 피해다니느라 남이 사 년 하는 공부 칠 년 팔 년 하잖으면 아예 졸업장도 못 타고……자네는 아들이 들이지만 난 하난데 그게 만약 그런 속을 썩었더라면 어쩔 뻔 했나. 그럴까봐 늘 타이르고 눈치보고 했지. 요행 그런 것하곤 담을 쌓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난 더 바랄 게 없네. 자네가 우습게 보는 일본 유학도 나는 감지덕지고 (…) 그건 그렇고 내 속에서 절로 우러나는 감정 중 열등감 문젠데, 서교수, 해석 좀 해보게. 나의 잘나고 잘 기른 자식이 왜 자네의 빗나간 말썽꾸러기 자식들과 비교가 되면 왜 떳떳지 못한 것 같고 주눅까지 들어야 하느냐 말야?(박완서, <꽃을 찾아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4, 문학동네, 2006, 440~441면)

또한 <저문 날의 삽화1>²⁵⁾(1987)와 <우황청심환>(1991)²⁶⁾에서는 부

25) <저문 날의 삽화1>에서 어릴 적 입양해 온 친구의 아들 ‘영택’이 학생운동에 심취하는 것을 보고 반대하다가 갈등이 심해져 양아들은 집을 나간다. TV에 K대학 농성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며 ‘나’는 어릴 적 집 옆에 있던 서대문형무소를 떠올린다. ‘나의 어머니는 그 형무소를 불길하고 악으로 가득한 건물로, 그 속의 미결수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취급했지만 “철이들고 나서 그 미결수들은 나중에 무죄가 판명되어 풀려나는 수도 있고 또 독립투사도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저문 날의 삽화1>, 박완서 소설 전집5, 문학동네, 2006, 33~34쪽) 이러한 기억에 미치자 ‘나’는 “영택이를 몰아붙이는 데만 급급해서 한 번도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던 데 대한 회한”(35쪽)과 걱정으로 쓸쓸한 일상을 보낸다.

26) <우황 청심환> 속 주인공 부부의 아들은 대학교 일학년 때부터 운동권에 속해 부모와 갈등하다가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집을 나가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을 몰라 부부는 작품 후반부에서 “어디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며 통곡한다.

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학생 운동을 하던 자식들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그리고 <저문날의 삽화2>(1987)에서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동에서 지내게 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보낸다.²⁷⁾

이처럼 학생운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시대사적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후반 한국 및 세계는 크나큰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동구권의 몰락과 1988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통한 군부정권의 종식과 같은 세계사적, 한국사적 격변이 일어났다. 70년대의 학생 및 노동 운동을 통해 '적색 공포증'을 민중 스스로 깨기 시작했고, 민중의 저항에 '배후', '빨갱이' 등으로 낙인찍고 좌절시켰던 지난날의 족쇄들을 풀어버리고 누구나 억압과 굴종에 반대하는 주체로 서기 시작한 것이다.²⁸⁾ 박완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지, 의식하고 있었음을 소설을 통해 드러내었다.²⁹⁾ 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복

27) 물론 <저문날의 삽화2>에서 주인공의 제자 남편으로 등장하는 운동권 출신 남자는 오히려 권력욕과 폭력성만 강한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며, <티타임의 모녀>(1993)는 부유한 운동권 출신 남편이 여공과 결혼했지만 막상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세속적 안위를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 부잣집 아들로 되돌아가 여공 출신의 아내를 부르주아들의 세상 속에서 소외감과 불안에 짓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박완서는 학생운동, 운동권 출신들의 이면의 가식성, 위선, 폭력성, 모순 등을 포착해내려는 시선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한 편으로는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고 있었다.

28) 이정식, 같은 책, 298쪽.

29) 강인숙도 본고와는 다른 각도에서이지만 박완서의 1970년대와 1980년대 소설의 성격이 다름을 지적했는데 “1970년대의 글쓰기는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는 토약질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체험의 끄적함을 증언하는 가공할 증언이었으며, 복수의 칼날로 미친 듯이 현실을 내리치는 난도질이었고, 살가죽을 발라내듯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혹한 박리작업”이었던 데 반해 1980년대에 들어서면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 야박스러운 허물 벗기기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들 사이에서 작가가 긍정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고 구별했다. ; 강인숙, 『시대적 상황과 소설의 변용-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박완서』, 『박완서』, 서강대출판부, 1998.

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와 <오동의 숨은 소리여>(1992)를 들 수 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6.29선언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갖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와 희망이 도처에 팽배해 있을 때”(〈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박완서 소설 전집5, 문학동네, 2006, 164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박완서는 세상이 변한 이후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진실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이들과 진실이 복원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들 때문에 은폐, 미화시키는 것을 목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의 갈등을 두 개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형상화했다. 하나는 과거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킨 부패 정치인에 대한 폭로를 수기로 작성했던 한 노인이 그 정치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자신의 고발 의지를 포기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6.25 때 ‘빨갱이’로 몰려 처형당한(그러나 그동안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은사님의 소설을 전집으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은사의 가족들과 작가인 주인공 사이에 ‘복원해야 할 진실’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이야기이다. 이 두 삽화를 통해 박완서는 ‘탈냉전’, ‘민주화시대’라는 세계의 변화가 실제 개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어놓을 순 없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³⁰⁾

또한 <오동의 숨은 소리여>에서는 주인공 김노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아줌마의 외아들이 공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구사대에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설정이 삽입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그녀가 우연히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문득 일손을 멈추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 모습을 본 김노인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자신의 젊은 날 인민가요를 부르던 기억, 냉전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전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젖는다.

30)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과 탈냉전시대와의 연관성을 밝힌 논의에 대해서는 이선미, 같은 글, 418~419쪽 참조.

몇십 년에 걸쳐 수많은 목숨이 그 밑에 전사한, 또는 전사를 맹세케 한 그 국경없는 깃발이 어찌면 저렇게 피 한 점, 눈물 한 방울의 애도도 없이 순간적으로 영원히 사라진단 말인가. (...)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중해서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무상이로고, 한 시대의 역사적인 사라짐에 그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그의 마음을 소슬하게 했다.(<오동의 숨은 소리>, 박완서 소설 전집5, 문학동네, 2006, 325~326면)

이러한 작품들은 박완서 혹은 박완서의 소설이 역사성, 시대의식을 배제했다는 기존의 논의를 재고해 보게 만든다. 박완서는 1980년대라는 국내외적 격변기가 1950~60년대를 거쳐온 기성세대들에게 어떠한 각도에서 보였는지를 위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구체적, 일상적 차원에서 묘사해주었다. 대학생의 목소리로 이 시대를 그려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모의 눈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형상화하려했던 박완서의 의지가 이들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주로 한국전쟁과 연관 지어 평가되어 왔던 '대문자적 시대와 역사를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문자의 역사로 묘파해내는 능력'³¹⁾이라는 박완서의 강점이 1980년대 역사 속에서도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대문자의 역사 뒤의 '어머니'의 눈물-〈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그런데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에 박완서가 보다 내밀한

31) 이러한 맥락에서 류보선의 “박완서의 소설은 근대 이후 우리 문학사에서 개념화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었던 우리의 특수한 역사를 텍스트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문학사의 전환점이며, 한국문학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의 특수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를 독자적으로 형성한 문학사적 사건이다. 사실과 관련없는 개념 혹은 사실의 자의적인 해석이 오히려 열렬히 환영받는 이 황무지에서 박완서와 같은 엄정한 리얼리스트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일종의 경이이며 동시에 축복이다.”라는 지적은 중요하다.; 류보선, 앞의 글, 463쪽.

거리에서 학생 운동을 소설 속에 담으려 했다. 이 소설에 이르러 1980년대는 박완서에게도 ‘가족의 서사’로 내면화되게 된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학생 운동 중에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를 가장 섬세하고도 생생하게 담았다. 아들이 죽은 지 7년이 지난 화자는 “형님, 우리가 참 모진 세상도 살아냈다 싶어요 어찌 그리 모진 세상이다 있었을까요? 형님, 그나저나 그 모진 세상을 다 살아내거나 한 걸까요?”(<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박완서 소설 전집5, 문학동네, 2006, 394쪽)라고 생각하며 이 민주화 시대의 도래를 회고한다. 아들이 죽은 뒤 “민가협 엄마들 덕에 의식화된 것도 있고 해서 죽은 우리 창환이가 산 법 관보다 골백번은 더 잘나 보이더라”고 말하는 화자는 다른 집 아들의 출세나 결혼, 행복한 삶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값지다 여긴다.

그러나 화자는 한 친구의 주선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동안의 ‘강한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 “즈네들 아들 경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러워할 것 같아 쉬쉬 초대하기를 꺼리던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그 집 모자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자 한 거였어요. 죽는 것보다 못한 경우를 보고 위로받아라”(399쪽)라는 생각으로 화자의 친구가 주선한 방문이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병수발 드느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병든 자식이라도 자식을 옆에 두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에 갑자기 북받쳐 오른 슬픔을 말하는 장면은 가히 압권이다.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예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구요. 세상에 어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

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박완서 소설 전집5, 문학동네, 2006, 400~401쪽)

이러한 극한의 감정을 소설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앞서 언급한 '시대적 변화' 외에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주목해야 한다. 데뷔 이전의 박완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6.25라면, 데뷔 이후 박완서의 작품 활동에 강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1988년의 남편과 아들의 연이은 죽음이다. 그중에서도 아직 20대인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일은 박완서에게 크나큰 충격과 허탈함을 주었다. 데뷔 후 한 해도 쉽 없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던 박완서는 이 해에는 연재 중이던 작품 <미망>도 중단하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³²⁾ 그러한 박완서에게 1980년대 후반 김세진, 박종철 등 대학생들의 죽음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³³⁾ 특히 그들의 부모와 동질감을 느끼며 죽은 그 대학생들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 결국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박완서의 어머니로서 학생 운동 문제에 대해 지녔던 소극적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박완서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자식을 잃은 부모'라는 지점에서 대학생 열사들의 어머니와 만났던 것이다.

작년에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순전한 사고였기 때문에 원망은 복받치건만 원망할 대상이 없다. 이럴 때 만만한 건 하느님이다. (...) 하느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 의식 속에서 죽는 날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내 심장을 달라고 할 것이지, 아들을 달라고 한 하느님에 대한

32)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생활성서』, 1990.9~1991.9.

33)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들춰본 여성지에서 중철군 어머니와 세진군 어머니의 대담 기사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사진에는 두 어머니의 눈에 그렇게 맺힌 눈물까지 여실히 나와 있어 가슴속에도 아들을 묻은 어머니의 단장의 슬픔이 생생하게 와 닿았다.”(<말의 권위>,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햇빛출판사, 1996, 35면)

어미의 참담한 원망의 방법이다. 어미로선 하느님의 뜻보다는 마리아의 통고를 체험하기가 훨씬 쉽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광주 어머니들’의 설움과 원한이 남의 일같지 않은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온 것도 내 설움이 있고 나서였다. ‘어머니의 노래’³⁴⁾는 그동안의 망각과 무관심에 대해 차라리 고문이었다. 우리의 잘못된 정치 현실 때문에 줄지에 무참히 아들딸을, 어미 아버지를 잃은 게 어찌 광주뿐일까.(<어미의 5월>,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햇빛출판사, 1996, 55~56면)

학생 열사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입하게 된 박완서는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을 통해 학생 운동의 문제를 전면, 단독으로 내세운 소설을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여전히 ‘어머니’의 시선에서 말이다.³⁵⁾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머니 자신 또한 ‘의식화’되었다. 또한 앞서 말한 바, 박완서가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켜 줄 생명을 놓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박완서는 이제 학생 운동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해 주저하지 않게 된 것이다.

1970~80년대를 흔히 민주화운동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 노동자들, 민주투사들만으로 이루어져있었을 리 없다. 운동, 혁명의 투사들 뒤에는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고통과 시련에 눈물짓는 가족, 어머니가 존재했다.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지키고, 그 가족 지킴의 모성적 원리를 사회로 확산하는 것,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박완서 문학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하응백의 지적을 상기해볼 만한 지점이다.³⁶⁾ 민주화는 투사들의 피와 투사들 가족의 눈물이

34) ‘어머니의 노래’는 1989년에 MBC에서 광주특집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김윤영 연출)이다. 이 작품은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당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해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35) 하응백은 “아들이 아버지 되기가 우리 소설의 큰 즐거였다면, 그 대응되는 자리에서 박완서 문학은 딸이 어머니 되기에 몰두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박완서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432쪽.

함께 성취한 것이다. 박완서 소설은 혁명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아왔던 투사들의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 시대를 회고함으로써 엘리트주의적 이상(理想)과 이념이 포섭하지 못했던 소시민의 '공감'과 '눈물'의 역사를 그려내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식이다라도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만 하다면 무엇도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통해 '민주화'라는 대의에 희생되어갔던 젊음들을 애도하고 대문자의 역사에 균열의 지점을 포착해낸 것이다.

이처럼 박완서에게 1970~80년대 학생운동은 '어머니'로서의 시선으로 그 거리감각이 시대와 개인사적 상황에 따라 변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박완서는 소위 '대학생(지식인) 소설'이라 칭해지는 1970~80년대 다른 작가들의 소설들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학생 운동을 다루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외면했다거나 시대의식이 결여된 채로 창작활동을 했었다고 단정지어선 곤란하다. 그녀의 작품이 보여주는 (학생의)어머니로서의 시대·혁명·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선적·남성적·엘리트주의적 시선으로 획일화되어왔던 학생운동 소설에 다채로운 색채와 '다른' 역사 서술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박완서를 개인적, 소시민적 일상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작가라거나, 작가 자신의 말대로 역사의 흐름을 소설에 담을 역량이 되지 않는 작가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박완서의 소설은 관념적인 시대의식과 거대한 사회적 현실·구조의 문제를 초근거리에서, 미시적으로 개인화하여 재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사적'이다.

6. 결론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서는 당대의 다른 작가들이 천착했던 대학생들

의 학생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은 연애, 결혼, 돈벌이, 취직 등이 최대 관심사이고, 사회의 부조리나 시대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소설에 등장하는 ‘학생운동(노동운동)하는 대학생’들은 그 활동이 매우 암시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 때문에 곤경(행방불명, 구직난, 무기력한 삶)에 처하거나, 자신의 운동 이력을 ‘한때의 허영’ 혹은 ‘젊은 날의 과오’로 여기며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박완서는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면은 실제 1970~80년대에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자녀들에게 누누이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던 작가의 삶에서의 태도와도 일관된다.

그러나 박완서가 이처럼 대학생의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 근본적 이유를 단순히 시대에 대한 의식의 결여나 기성세대의 보수성으로 보아선 안 된다. 그녀의 태도의 근원은 <돌아온 땅>과 <카메라와 워커>와 같은 작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돌아온 땅>에서 삼촌의 월북, <카메라와 워커>에서 아버지의 빨갱이 전력은 자녀들의 삶에 큰 굴레이다.

주지하듯이 박완서는 오빠의 좌익 이력 때문에 사상검증에 대해 원초적 공포를 갖고 있었다. 그 검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자녀세대라는 것이 더 큰 공포였다. 이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데모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박완서 자신도 ‘소설로써 데모하기(시대비판)’를 꺼려했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는 학생 운동을 ‘지식인’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선에서 본 박완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질이다. 그녀에게는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보다 후세대(의 생명)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박완서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소설에서 학생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룬다. 실제 1988년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어야 했던 박완서에게 198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죽음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그들의 부모와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모든 비굴함을 무릅쓰고서

라도 지켜주고자 했던 생명을 놓쳐버린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처럼 박완서에게 1970~80년대 학생운동은 '어머니'로서의 시선으로 그 거리 감각이 시대와 개인사적 상황에 따라 변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이 보여주는 (학생의)어머니로서의 시대 · 혁명 ·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선적 · 남성적 · 엘리트주의적 시선으로 획일화되어왔던 학생운동 소설에 다채로운 색채와 '다른' 역사 서술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완서 소설전집』 1~17, 세계사, 2011.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6, 문학동네, 2006.
 『꽃씨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햇빛출판사, 1996.

2. 단행본논문

- 강민정, 「박완서 소설 연구: 자전적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박세나,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변모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권영민 외, 『박완서론』, 삼인행, 1991.
 권정희, 「박완서 소설 연구: 성장기 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권향숙, 「박완서 소설의 성장소설적 양상」,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혜경,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혜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 노미연, 『1990년대 여성소설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 박완서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6, 353~386쪽.
- 박상미, 『박완서 소설 연구: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은주, 『박완서 자전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채랑,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성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희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서미혜, 『<엄마의 말뚝> 연작에 나타나는 억척 모성상과 근대적 여성의식의 관련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송봉은, 『한국 전후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경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문학동네, 2006, 371~392쪽.
- 신영지, 『박완서 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신은정, 『박완서 소설 속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안남일, 『현대소설에 나타난 분단콤플렉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유지은, 『박완서 성장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송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경호·권명아 외,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상허학보』 12호, 2004, 403~432쪽.
- 이선미, 『어미의 역사와 ‘늙은 엄마’의 진실』, 『현대문학의 연구』, 1997, 89

~136쪽.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1.

이선옥, 『모성 다시쓰기의 의미-박완서론』, 『여성문학연구』, 2000, 247~266쪽.

이수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6.25 전쟁의 수용 양상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호, 2011, 83~110쪽.

이운경, 『박경리 박완서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9.

이인숙,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여성의 '성'』, 『국어어문』 22호, 2000, 193~222쪽.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이정식, 『새로운 학생운동사』, 도서출판 힘, 1993.

이태동 편, 『박완서』, 서강대 출판부, 1998.

임혜림, 『여성 작가의 자전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9호, 2010, 111~130쪽.

정미숙 외,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54호, 2010, 273~300쪽.

정유경, 『박완서 성장소설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정해진, 『박완서 소설 연구-전쟁체험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4호, 2007, 223~257쪽.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5호, 2008, 219~242쪽.

-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박완서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6, 349~368쪽.
- 한송이, 『박완서 단편소설의 자전적 인물 변화양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1.
- 홍지화,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박완서 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1.
- 황은진, 『노년서사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The 'students' movement' through the novels of Park, Wan-Seo

Lee, Young-Ah

Novels written by Park, Wan-Seo in the 1970s hardly dealt with the 'students' movement' at all. Unlike other writers who were keen to discus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day, Park usually described university students as not entirely sensible people interested primarily in dating, marriage, income and employment. That is to say, Park was skeptical about the value of the students' movement. She urged her own daughters, university students at the time, not to participate in demonstrations at all. This was due primarily to her fear of the so-called 'red complex' that had taken her brother, a Marxist, from her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the logic of a mother wanting to protect her children. However, she also felt ashamed as an intellectual. Thus, in the late 1980s her novels became more society-participative, and she eventually began to write positively of the students' movement as society became more liberal and the red complex started to fade. In addition, she lost her only son, an event that taught her to empathize with mothers who had lost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fight for democracy.

Key words : Park, Wan-Seo, students'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demonstration, university student, red complex, mother, empath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